“고대 한반도·中 산둥, 불교 교류 활발”

國博, 산둥성 금동불상 비교 연구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한반도에 처음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 비교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중국 산둥박물관과 공동으로 〈중국 산둥성 금동불상 조사 보고 -불교 미술의 교차로, 산둥의 금동불〉을 발간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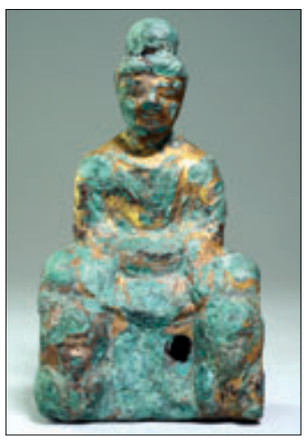
중국 산둥성에서 출토돼 산둥박물관·보싱현박물관·타이안시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불상 25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한국의 고대불교 조각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됐다.

중국 산둥 지역에서 출토되는 불교조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과 유사성을 보여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간 자료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산둥성 출토 주요 금동불상 25점은 중국 십육국시기(304~439)부터 수대(581~618)까지 제작된 상으로 한국의 삼국시대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11점은 명문이 새겨져 있어 향후 삼국시대 금동불상의 연대 추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고대 한반도와 중국 산둥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실려 눈길을 끈다.

보싱현박물관 소장 금동불좌상은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도상을 보여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상이며, 이 상과 유사한 상이 산둥성에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부터 산둥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사진 왼쪽〉과 산둥성 보싱현 릉화사지 출토 금동불좌상〈사진 오른쪽〉. 유사한 모습의 불상을 통해 고대 한반도와 중국 산둥성이 활발히 교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산둥 출토 금동불 25점 조사
뚝섬 불상 등 유사 불상 다수
불교 전래 초기부터 교류 추정
산둥지역 불상 소개 전시 계획

산둥박물관과 타이안시박물관에서는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와 같이 광배 외연에 ‘ㄷ’자 돌기가 있는 금동광배를 조사했다. ‘북위(北魏) 태화(太和) 18년(494)’과 ‘영안(永安) 2년(529)’의 기년이 있는 금동불상 2점은 매우 이른 시기인 북위 시대(477~499)부터 산둥성서 ‘ㄷ’자 돌기가 있는 금동광배가 유행했고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조사과정서 산둥박물관 소장 금동광배의 출토지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서 출토된 삼국시대 제작 추정 보살삼존상과 유사한 불상이 확인됐다. 산둥성 보싱현서 출토돼 보싱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관세음삼존보살입상’으로 수나라 시기에 제작됐다. 당시 발굴에는 주존이 보살인 삼존불상 7점이 함께 출토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고서는 “고대 산둥 지역에서 보살형 삼존상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고서 출간을 계기로 향후 산둥성의 고대 불교미술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불선 근원 사상 학술적 조명한다

청화사상硏, 21일 학술대회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청화 스님이 주창했던 염불선의 정통 근원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오는 4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염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불선의 근원을 찾는 연구 성과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정토염불과 실상염불선’을 발표하는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정토종의 정토염불과 금타·청화 스님의 염불선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통점·차이점을 밝히며, 최종적으로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교수의 발표논문 ‘불조의 정통 정맥과 염불선’을 통해 인도불교부터 달마·혜능 등의 순선시대 이후 전개되는 불교 흐름을 살피고 주류불교의 순수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이후 토론자로는 안유숙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여한다.

청화사상연구회는 “염불선의 보편성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도난됐던 운문사 칠성도 제자리 찾다

조계종 13일 성보 특별공개

국외로 유출됐던 청도 운문사 칠성도가 민관의 협조로 제자릴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환수된 청도 운문사 칠성도를 공개했다.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는 7폭에 나누어 그려진 칠성도 중 1점이다. 화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화승 위상(偉相)과 봉전(奉典)이 조성하여 운문사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129.5×74.3cm 크기의 칠성도는 세로가 다소 긴 화폭에는 상하 2단 구도로 나눠 상단에 병풍을 배경으로 결가부좌한 칠성여래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아랫 쪽에서 솟아오른 연꽃대 좌우로 권속을 배치한 구성이 돋보인다. 특히 5폭 병풍을 배경으로 천공에 베풀어진 주홍색 위의 구름문 구성은 위상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1868년의 운문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의 이중광배 주변에 표현된 구름문과 일치해 ‘운문사 칠성도’도 함께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수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칠성도 1점을 발견해 종단과 공유했다. 종단은 발견된 칠성도의 원 봉안처가 운문사이며, 19세기 대표 수화승 위상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도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한국의 혼란 시기였던 1950~60년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 조계종과 운문사, 국외소재문화재단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19세기 대표 수화승 위상 작품
1950~60년대 혼란기에 유출
美 경매에서 매입 환수
특별 공개 후 운문사에 봉안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청도 운문사,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성보의 환지본처를 위해 매입환수를 결정했으며, 지난 3월 21일 미국 뉴욕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받아 4월 1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운문사 칠성도는 환수 성보 특별공개 이후 제자리인 운문사에 봉안된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이번 환수는 원 봉안 사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축이 됐고,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종단, 사찰, 국외재단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계종 문화부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외 유출 성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화성 당성, 사상사적 깊은 의미 가져”

윤명철 교수, 7일 화성불교유적 학술발표회서

원효 스님의 오도처로 추정되는 곳 중 하나인 화성 당항성이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4월 7일 ‘정신문화 유산으로서의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화성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발표 논문 ‘원효의 오도처 화성 당성’에서 화성 일대의 지정학적 의미를 해양교류사적 관점에서 살피고 이를 통해 사상사적 의미를 추정했다.

윤 교수는 “화성 일대를 놓고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한 것은 경기만의 중심이면서 중국 교류에 꼭 필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6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일대를 장악하며 중국과 교류를 하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불교 사상과 문화가 중국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고 적지 않은 신라 유학승려들이 당나라로 건너갔음을 상기시킨 윤 교수는 “유학승려들이 신라 주도의 삼국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당나라의 억압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신사상사에서 큰 역할을 한 신라불교는 화성 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효의 오도처인 이 지역은 사상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오도처는 항구에 가까운 고구려식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IJBTC, 톰슨 로이터 DB 색인 수록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발행하는 국내 유일 불교학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사진, 이하 IJBTC)〉가 톰슨로이터의 새 데이터베이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이하 ESCI)’에 색인 수록된다.

〈IJBTC〉가 등재된 ESCI는 톰슨 로이터에서 2015년 11월부터 적용한 새 데이터베이스 제도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y Citation Index) 등이 동시에 등재돼 있다.

신성민 기자

치유명상 통한 전법 방법은?

불광연구원, 27일 연찬회

치유명상을 통한 불교 신행과 전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제3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의 ‘음악을 통한 명상과 치유’를 비롯해 미소선원장 혜림스님의 ‘트라이앵글 컬러 메디테이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전통사찰과 경관치유’, 서영심 동명북명상연구원장 ‘북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진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가 각각 주제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